

No.83

Japan Weekly Digest

2011. 4. 23. ~ 4. 29.

□ 금주의 이슈

- 제6차 '한중일 30인 회의' 개최
- 日경제연구센터, 지진피해지역 조세특구 설립제안
- S&P, 일본신용등급 '부정적' 으로 하향 조정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자가발전설비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책 발표
- 에너지정책 전문가회의 설치
- 일본유통기업의 중국진출지원 강화 발표

□ 일본기업전략

- 산토리, 한국 등에서 대체생산 검토
- 스미토모금속, 지진피해 공장 공개
- 日기업, 여름철 전력난 대책으로 근무시간 조정

□ 보고서 리뷰

- 경산성,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산업실태 긴급조사



협회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제6차 '한중일 30인 회의' 개최

- 한중일 3개국 경제, 정치, 학술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3개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「한중일 30인 회의」가 24일 중국에서 개최
- 일본 대지진으로 부품소재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, 아시아역내에서 안정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중일이 협력해야 된다고 제안
- 삼성전자 이윤우 부회장은 “핵심적인 부품의 공동개발과 생산기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”하다고 강조하고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
- 기타 △한중일 「원자력안전협약체」설립, △3개국 공통漢字 선정·보급, △스마트 그리드 기술표준화협력 등이 제안되었음

○ 日경제연구센터, 지진피해지역 조세특구 설립 제안

- 日경제연구센터는 동일본 대지진 재해복구를 위한 부흥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이와테, 미야기, 후쿠시마 각 현(縣)의 지방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「조세특구」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
- 향후 5~10년간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피해복구에 활용하고 △피해지역에 풍력 발전 도입, △주파수를 통일시켜 전력을 전국에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도 제안
- 3개현에서는 지방법인세와 고정자산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. 세입감소분 5000억 엔은 부흥세를 도입하여 재원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제안

○ S&P, 일본 신용등급 '부정적'으로 하향 조정

-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가 27일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‘안정적’에서 ‘부정적’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
- S&P는 대지진과 쓰나미,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에 따른 복구비용이 50조엔에 달해 일본의 채무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
- *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'AA-'를 유지. 이는 4번째로 높은 등급임
- S&P는 “향후 2년간 국가재정이 현재의 전망치보다 악화될 경우,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”고 지적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○ 자가발전설비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책 발표

- 경제산업성은 여름철 전력부족을 위한 대응책으로 자가발전설비 도입에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발표
- 경산성은 가스터빈설비, 디젤발전기 등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, 휴면상태에 있는 설비를 재가동시킨 기업에게 비용의 약50%를 보조할 방침
- 생산된 전력의 500킬로와트 이상을 전력회사에 공급하는 것이 조건. 이 정책이 실행 되면 기업으로부터 약 20만킬로와트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또한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전력사용자에게 전문가를 파견하여 절전에 관한 어드바이스제도를 도입할 방침

○ 에너지정책 전문가회의 설치

- 가이에다 경산대신은 28일,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를 위해 「미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지식인회의」(에너지정책 현인회의)를 설치한다고 표명
- 5월초 창립총회를 목표로 추진. 회의멤버는 아리마 아키토(동경대 명예교수), 데라시마 지쓰로(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)등 7명으로 구성
- 경산대신은 "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회의이다. 특히, 원자력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,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" 고 설명

○ 日유통기업의 중국진출지원 강화 발표

- 경산성은 일본유통기업들의 중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「日·中 유통대화」를 설치한다고 발표
- 중국과는 FTA체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양국간 정책협의 창구로 「日·中 유통대화」를 설치, 중국에 진출하려는 일본 유통기업들을 지원하려는 의도
- 구체적으로 일본기업의 중국진출이 용이하도록 규제 완화, 상표보호 등을 강구할 예정. 중국은 일본 도매업의 노하우 도입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금년 여름 제1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

*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상표등록문제로 고액의 양도금액을 요구 당한 사례가 있음

□ 일본기업전략

○ 산토리, 한국 등에서 대체생산 검토

- 산토리 사지 사장은 주력 브랜드의 생산량 확보를 위해 한국, 중국 등 해외 기업을 포함, 대체생산을 위한 공장설립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음
- 사지 사장은 “전력이 중단되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교토 공장, 한국과 중국 등에서 대체생산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” 라고 언급하고 해외에서 대체생산 가능성을 시사
- 산토리는 맥주회사로는 유일하게 동북지방에 공장이 없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, 원재료와 패키지 조달이 어려워져 “4월에는 충분한 맥주를 공급할 수 없었다” 고 설명

○ 스미토모금속, 지진피해를 당한 공장 공개

- 스미토모금속은 25일, 대지진 피해를 입은 가시마제철소를 공개했음
- 지진발생 후, 중단된 생산라인은 재개되었으나 해일로 붕괴된 대형 크레인도 아직 복구가 안된 상황. 설비를 지진 피해 이전 상황으로 회복시키는데 1년 이상이 걸릴 전망
- 연간생산능력은 830만톤. 자동차, 조선용 鋼材 등을 생산하고 있음



○ 日기업, 여름철 전력난 해소를 위해 출근시간 조정

- 일본기업들이 여름철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근무시간을 앞당기는 등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
- 미쯔비시 후소 트럭·버스가 26일, 근무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발표하는데 이어 닛산자동차, 파나소닉에서도 도입을 검토
- 미쯔비시는 근무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조정했으며, 파나소닉그룹도 직원 약10만 명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

□ 보고서 리뷰

동북대지진 이후 산업실태 긴급조사 (경제산업성)

□ 경산성은 26일,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

- 피해를 입은 제조업의 60% 이상이 생산을 재개하였고, 다른 기업들도 여름까지 거의 복구될 것으로 전망
- 소재, 가공업종의 80%이상 기업이 거래처 피해로 인해 원재료나 부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

□ 제조업

1) 피해지역 생산거점 복구전망

- 피해지역의 생산거점 60% 이상이 복구되었고, 나머지 30% 기업들도 여름까지 복구될 것으로 전망
 - 업종별로 소재업 67%, 가공업 58%가 「복구 완료」라고 응답. 「여름까지 복구」라고 응답한 기업은 소재업 20%, 가공업 38%로 조사

2) 원자재, 부품·소재 조달이 어려운 원인

- ‘1차 조달처 피해’와 ‘2차 조달처 피해’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음
 - 1차 조달처 피해 : 소재기업 88%, 가공기업 82%
 - 2차 조달처 피해 : 소재기업 42%, 가공기업 90%
 - 계획 정전 영향 : 가공기업 50%

3) 원자재, 부품·소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기

- 원자재나 부품조달 문제가 해결될 시기에 대해 소재기업 85%, 가공기업 71%가 10월까지는 해소될 것으로 응답
 - 다른 ‘조달처가 있다’고 응답한 기업은 소재 76%, 가공 65%로 조사

□ 시사점

- 이번 지진 피해로 일본기업의 약 80%가 부품소재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**부품 소재 조달 분산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**
 - 이번 지진을 계기로 일본기업들이 지진대책과 BCP(사업연속계획) 논의가 활발해 질 전망이므로 해외생산과 BCP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복구·부흥을 위한 입법조치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4월25일
*출처: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rashinban/pdf/et11_017.pdf
- (2) 『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와 지진 여파』 스미토모신탁은행, 4월25일
*출처:http://www.sumitomotrust.co.jp/RES/research/PDF2/721_3.pdf
- (3) 『동북대지진 이후 산업실태 긴급조사』 경제산업성, 4월26일
*출처:<http://www.meti.go.jp/press/2011/04/20110426005/20110426005-2.pdf>
- (4) 『공급망 복구를 위한 산업계의 대응』 경제산업성, 4월26일
*출처:<http://www.meti.go.jp/press/2011/04/20110426005/20110426005-3.pdf>
- (5) 『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』 경제기획협회, 4월26일
*출처:<http://www.epa.or.jp/esp/11ss/11ss05.pdf>
- (6) 『지진발생 1개월, 생활자 의식조사』 덴츠, 4월27일
*출처:<http://www.dentsu.co.jp/news/release/2011/pdf/2011040-0427.pdf>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4월 25일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월 기업서비스가격지수 발표(일본은행) ○ 3월 전국슈퍼 매출발표(일본체인스토어협회) ○ 한중일 30인회의 개최(중국)
4월 26일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요네쿠라 경단련 회장 기자회견 ○ 3월 백화점 매출 발표(일본백화점협회) ○ '동북대지진 이후 산업실태 긴급조사' 발표(경산성)
4월 27일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제동우회 통상총회 ○ 3월 상업통계 발표(경산성)
4월 28일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1년 1차 추경예산 국회제출 ○ 3월 광공업생산지수 발표(경산성) ○ 3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(총무성) ○ 실업률 발표(총무성)
4월 29일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북신칸센 센다이-이치노세키(이와테) 개통